

## <지난주 말씀&서론>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운 자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운 자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사실들, 말씀은 바뀌지만 그 말씀의 흐름은 바뀌지 않고 우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할 복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말세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운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이냐, 어떤 흐름을 타고, 그걸 놓치지 말 것인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11:1-44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고 마르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오빠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동생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뭔가 달라졌을 텐데, 이미 오빠가 죽었고, 장사도 치르고, 돌무덤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나흘 뒤에 오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왜 이제야 오십니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옛 틀입니다. 이게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입니다. 의식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믿으면서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도 이들은 내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 11:26-27).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셔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예수님이 안 맞아요,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게 문제가 있고 이미 죽어서 봉대를 감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은 오셔서 나사로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돌무덤 앞에 가서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예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포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잘 안돼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응답이 없구나, 교회 일 다 해봤는데, 응답 없는데? 이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사역으로,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줘야 합니다. 나하고는 안 맞는데, 내 문제와는 안 맞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요 영원히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는 사람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 때 어떡하시렵니까? 나와야 합니다. 어디서? 죽음에서, 봉대에서, 돌무덤에서, 묶인 데서 풀려야 합니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담겨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 속에 발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절대방법, 절대능력, 절대말씀, 절대성전, 절대계획, 절대통치, 섭리, 심판, 상급입니다. 이걸 보고 열가지 발판이라고 합니다. 이 발판 위에 여러분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현실과 사실과 진실입니다. 거기에는 살리는 영적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원네스를 깨뜨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하셔야 합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나사로가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나라는 망대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상의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으로, 성공의 이정표에서 오직 성령의 이정표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237나라 5000종족에 맞추고, 여러분의 미래를 3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시대에 맞추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본론>

###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증

인은 본 자입니다. 가진 자입니다. 말해주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계1:1)**

천사를 보내서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이 말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에 대한 말씀, 때에 대한 시간표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여정이 때에 대한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1:2-3)**

본 것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말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증인은 본 자, 가진 자, 말해줄 수 있는 자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 CVDIP라고 1부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계1:4)**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1:5-6)**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모습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하셔야 합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고 학교, 직장 가고 일하고 하는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가 사는 모든 것은 아버지를 위함**

구나, 이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제 사장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 2. 불지어다

▶불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1:7)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자연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오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찢었던 로마 군병들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 모든 족속이 선택의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계1:8)

오늘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전능자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장차 있을 자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밋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계1:9)

요한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환난 때에 있었고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언하다가 밋모 섬에 유배된 자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계1:10)

반드시 나팔 소리가 나는 주의 날이 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계1:11)

요한이 이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는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

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계1:12-16)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재림주와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밋모 섬에서 사도 요한이 음성을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런 모습의 부활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꿈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 3. 내가 볼 때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계1:17)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계1:17(하)-18)

사도 요한이 육신으로 본 예수님이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던 자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전에 직접 보았지요. 육신으로 내가 보았던 예수님이 네 진짜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인생의 주인, 우주의 주인, 천국의 주인은 세세영원토록 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과 마귀는 절대 이 열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참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계1:19)

보았고 들었던 일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계1:20)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은 일곱 교회의 사자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뭘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말할 때, 어센틱 투데이(Authentic today)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주인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이루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참 주인, 나의 참 주인, 교회의 참 주인이 누구입니까? 참 주인이 맞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237 5000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 《결론》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자가 바로 복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여정을 찾고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37과 5000종족과 방향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 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요, 전에 죽었던 자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한 주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당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